

국립민속국악원 판소리마당 '소리 판'

남원 지리산 소극장서 7월 매주 목·금 '완창 판소리 공연' 총 8회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7월 매주 목, 금요일 오후 3시에 남원 지리산 소극장에서 완창 판소리 공연 <판소리마당-소리 판>을 총 8회에 걸쳐 개최한다.

이 공연은 완창 판소리 무대의 정착과 판소리 계승·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국립민속국악원 기획 공연 2022판소리마당 <소리 판>은 다양한 유파별 판소리 5바탕 완창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다.

7월 첫째주는 우정문의 <적벽가>(7일)와 허애선의 <심청가>(8일)가 김학용, 고정훈 고수의 북반주로 총 4시간 30분 공연되고, 둘째주에는 유하영의 <수궁가>(14일)와 서진희의 <심청가>(15일)가 무대에 오르며, 수궁가는 이상호, 김형주 고수의 북반주로 총 3시간 20분 공연되며, 서진희의 <심청가>는 김태영과 임현빈 고수의 북반주로 총 5시간 30분 공연된다.

셋째주는 한금채의 <심청가>(21일)는 조용수 고수의 북반주로 총 5시간 공연되며, 김송의 <춘향가>(22일)는 박종호, 서은기, 김학용 고수의 북반주로 총 6시간 30분 동안 공연되고, 넷째주는 최영란의 <춘향가>(28일)가 김규형, 강길원, 유태경 고수의 북반주로 총 7시간 공연하고, 김금희의 <흥보가>(29일) 조용수 고수가



우정문

허애선

유하영

서진희



한금채

김송

최영란

김금희

북반주를 맡는다. 공연관람은 국립민속국악원 전화(063-620-2329) 또는 카카오톡 채널(국립민속국악원)을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서울시민 참여 이끌어낸 인간 박원순 이야기'

신간 '박원순을 기억하다' ... 박원순 65년 인생 소환

고(故) 박원순(1956~2020) 전 서울시장은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방식의 대안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했다.

박원순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시국변론을 펼치던 인권변호사, 역사문제연구소를 설립해 연구자들에게 건물을 마련해주고 역사서 수천 권을 기증한 역사학도, 작은 권리 찾기 운동을 시작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기부와 나눔 운동을 사회트렌드로 만든 사회운동가, 3선 서울시장으로 10년간 시민운동 현안 과제를 행정을 통해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준 행정가였다.

책 '박원순을 기억하다' (비타베아타)는 실용주의자로서 땅에 발을 딛고 시민 일상을 돌아보며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던 인간 박원순의 이야기를 지인들의 기억을 통해 돌아본다.

고인을 오래 기억하고자 하는 벗들이 모여 그의 삶을 그려냈다. 친구, 선·후배들은 고향 창녕의 시골 소년 시절, 판검사의 꿈을 키우던 경기고 학생 시절, 사법시험 합격 뒤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던 시절,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를 설립하며 활동했던 사회운동가 시절, 10년간 서울시장 혁신을 이끌어간 서울시장 시절까지 박원순의 65년 인생을 소환한다. /뉴시스



이 책은 박원순에 대한 여러 사람의 기억을 모아놓은 책으로 박원순의 65년 인생을 시계열에 따라 8개 장면으로 나눠 담았다. 그를 기억하는 원로 선배들의 글도 두어 편, 영국의 제프 멀건 등 그와 가깝게 교류했던 외국인 시민활동가들의 글도 실었다. /뉴시스

'제17회 대한민국 농악축제' 개최

익산시, 25일 보석박물관 칠선녀광장서 전통문화 신명·흥 선사

익산시는 제17회 대한민국 농악축제를 오는 25일 오후 1시에 보석박물관 칠선녀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악단체들의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객에게 선보이는 등 전통문화의 신명과 흥을 선사할 예정이다.

농악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전승 과정에서

서 지역의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여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가운데 각 지역을 대표하는 농악들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남성적이고 군악적인 기예가 뛰어난 진주삼천포농악, 쇠가락이 맑고 굽음이 분명하여 가락이 힘차고 씩씩한 임실팔봉농악, 농경 생활을 흥내 내어 재현하는 모습이 많은 강릉농악,

부포놀이가 매우 다양하고 장구의 가락과 춤이 발달된 이리농악 등 우리나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농악단체들이 참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우리 농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품격 있는 무형문화의 도시로서 익산시의 위상 제고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악은 인류의 창의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고 국내·외 다양한 공동체들 간의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지난 2014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부안군, '해설이 있는 영화음악 CINEMA' 27일 개최

부안군이 '2022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첫 번째 음악회 '해설이 있는 영화음악 CINEMA'가 오는 6월 27일 오후 7시 30분에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유수영)의 연주와 테너 이승희 교수의 해설이 함께하는 재미있는 영화음악 여행으로, 해리포터 OST 'Highlights from Harry Potter'를 포

함한 총 9곡이 공연장에 울려 퍼진다.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은 전라북도 최고의 오케스트라단으로서 부안군과는 2010년부터 상주단체로 함께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화·목요일 오케스트라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부안군은 2010년부터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첫발을 내딛은 후부터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해 왔고 13년 연속 선정되는

패거를 이루어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으로 우수공연을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상주단체는 연주를 통하여 역량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부안 주민들이 부안예술회관을 찾아와 예술로 힐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공연은 공연 시작 전 30분 전에 선착순 무료 입장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리얼타임 코믹연극 '택시안에서' 김제서 열린다

김제문화예술회관, 7월 8일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7월 8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웃음, 감동, 사랑이 시작되는 리얼타임 코믹연극 '택시안에서' 공연이 개최된다.

연극 '택시안에서'는 쾌활하고 유쾌한 택시 운전사 민수 그리고 하영과 소희 두 남녀의 운명적인 만남을 그린 내용이며, 85분간에 걸친 리얼타임 연극답게 속도감 있는 전개와 재미와 감동 그리고 반전까지 느끼는 시공간 초월 로맨스 코미디를 그린 이야기로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즐겁고 가슴 따뜻한 공연이다.

이번 공연의 관람권 예매는 6월 28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구매 가능하며,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한편 김제문화예술회관은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품격을 갖추면서도 시민들의 험터가 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일상 속 문화힐링, 김제문화예술회관 공연 산책'이란 주제로 2022년 공연일정을 확정하고, 3월부터 탄탄하면서도 새로운 장르의 문화공연을



시도해 매 공연 전석 매진을 이루어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BUAN-GUN

생동하는 부안

미래로 세계로



미래100년 먹거리!
수소산업을 이끌어가는
에너지 자립도시 부안